『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정 병 설

1. 서 론
2. 이현영과 사대부 집안 여성의 힘든 삶
3. 여성소설적 성격
4. 결 론

1. 서 론

『玉鴛再合奇緣』은 18세기의 한 士大夫家 여성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소설이다.(1) 그런데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친 선행연구에서 이 작품의 여성소설적 성격은 간과되었다.(2) 고전소설과 여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여성들이 고전소설사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지만, 여성들이 소설창작에도 대거 가담했다는 사실은 아직 뚜렷이 입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소설사에서 여성소설가의 존재가능성은 일찍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3) 그 구체적인 증거가 미약하여 여성소설

(1) 졸고, 1997 「「옥원재합기연」 작가 재론: 조선후기 여성소설가의 한 사례」,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참조.

(2)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① 심경호, 1990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 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권1호(통권38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② 최길용, 1992 『조선조 연작소설연구』, 아세아문화사, 제2부 8장 『옥원재합기연』 연작, 제2부 9장 창란호연록 연작, 제3부 2장 『옥원재합기연』의 작자고.
③ 양혜란, 1993 「옥원재합기연 연구」,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④ _____, 1994 「18세기 후반기 대하 장편가문소설의 한 유형적 특징: '옥원재합기연', '옥원전해'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75, 일지사.

(3) 임치균, 1995 「조선후기소설의 전개와 여성의 역할」, 『경산사재동박사화갑기념논총』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시작 단계에 불과한 형편이다.

고전소설 가운데 여성작가의 존재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방한림전』의 서술자 진술 속에 작가를 여성으로 설정한 것,(4) 『蘇氏名行錄』의 창작에 李匡師(1705~1777)의 딸이 가담했다는 『林下筆記』(李裕元: 1814~1888)의 기록, "일업슨 션비와 지조 잇는 녀지(女子) 고금쇼셜에 일홈 는 ᄇᆞᄅᆞᆯ 낫낫치 번역ᄒᆞ고 그 밧 허언을 창셜ᄒᆞ고 긱담을 번연ᄒᆞ야 신긔코 ᄌᆞ미잇기를 위쥬ᄒᆞ야 거의 누쳔 권에 지ᄂᆞᆫ지라"(5)는 홍희복의 「第一奇諺序」(1835~1848년 사이)의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완월회맹연』의 작가를 李彦經의 딸이자 安兼濟의 어머니인 全州李氏(1694~1743)라고 추정하고 작품에 나타난 여성소설적 특징을 검토한 연구도 있다.(6)

이러한 연구사적 맥락에서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거론된 또 하나의 조선조 여성소설인 『옥원재합기연』을 통해, 조선조 여성소설의 특징을 다시 검토하고자 하며, 이로써 조선조 여성소설 일반론에 이르는 길을 찾아보기로 한다.(7)

2. 이현영과 사대부 집안 여성의 힘든 삶

『옥원재합기연』의 중심인물은 소세경과 이현영이다. 그 가운데 특히 여성주인공 이현영의 성격과 삶은 주목할 만하다. 먼저 줄거리부터 살펴보자.

(4) 민찬, 1986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논문, 126~127면.

(5) 류탁일 편, 1994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아문화사, 184면.

(6) 졸저, 1998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제5장 및 제6장 참조.

(7) 이 글에서 주자료로 삼은 이본은 서울대 규장각본이다. 그런데 규장각본은 필체와 紙質로 인하여 해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이른바 낙선재본도 함께 이용한다. 두 이본은 부분적으로 표현이나 표기가 다른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거의 동일하며, 대체로 규장각본이 오자가 적은 편이다. 본문에서 작품의 인용연수는 '규장각본의 권수－인용면수'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인용면수는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1980)한 『(필사본)고전소설전집』에 표시된 면수이다. 규장각본 제1권에서 제5권까지는 『(필사본)고전소설전집』27에 실려 있고, 제6권에서 제10권은 『(필사본)고전소설전집』28, 제11권~제15권은 『(필사본)고전소설전집』29, 제16권~제21권은 『(필사본)고전소설전집』30에 실려 있다.

송나라 희령(1068~1077) 연간은 왕안석이 급진적인 신법을 시행하여, 조정의 의론이 갈리고 나라가 어지럽던 시기였다. 주인공 소세경의 아버지(소송)는 일찍이 스승의 아들인 이원의와 혼약을 맺었다. 소세경과 이현영(이원의의 딸)이 약혼한 것이다. 그런데 조정의 의론이 갈리자 혼약은 지켜지기 어렵게 된다. 소세경의 집안이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하는 소위 구법당이 되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자, 小人인 이원의가 파혼을 선언했던 것이다.

그런데 소인의 딸 이현영이 천고에 없는 "강렬"한 성격의 열녀라 문제가 생긴다. 아버지가 혼약을 저버리면서부터 이현영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 이원의는 먼저 권세가인 여혜경의 집에서 구혼하자 이를 매우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딸에게 여혜경 집안으로 시집가라고 강하게 권한다. 이에 열녀 이현영은 소세경과의 혼약을 들어 불가하다고 아뢴다. 그런데도 부모가 계속 설득하자 이현영은 칼로 자신의 얼굴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부모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권하는 백연—사실은 女裝한 소세경이다—에게 순금으로 만든 書鎭을 던져, 자신의 결의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 일은 다행히 여혜경의 아들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없었던 일이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안석의 외아들 왕방이 이현영의 香名을 듣고 이원의에게 구혼한다. 이원의가 이를 받아들이자, 이현영은 이 사실을 듣고 곧바로 男裝을 하여 당숙 구양수의 집으로 도망친다.

그런데 이현영은 구양수를 만나지 못하고 이 길 저 길 헤매며 떠도는 신세가 된다. 이에 이현영은 자신의 정절이 더럽혀질까 저허하여 자결을 꾀한다. 마침 이원의의 집을 도망쳐 나온 소세경이 이 광경을 보고 구출한다. 그런데 구출된 이현영은 소세경이 몇 마디 희롱을 하자 다시 물에 몸을 던지고 만다. 물에 빠진 이현영은 한참 후에 왕안석에 의해 구출된다. 왕안석은 구출한 숙녀가 자기 아들이 무례히 청혼했던 이현영임을 알고는 자신의 정체를 감춘다. 정체가 밝혀지면 이현영이 다시 자결할까 염려했던 것이다. 왕안석 부부는 이현영을 양녀로 거두어 친자식만큼 잘 돌봐준다. 그런데 나중에 이현영이 왕안석의 정체를 알게 되자, 이현영은 이번에는 목매 죽으려 한다. 이를 마침 근처에 왔던 외사촌이 와서 구하게 되고, 이

현영은 이후 외삼촌댁에서 머문다. 외삼촌댁에서는 소세경과의 결혼이 의논되는데, 이현영은 자신이 무단으로 가출한 죄가 있다면서 돌연 창문을 열고 연못에 투신한다. (이상 제3권까지의 줄거리)

이현영은 다시 구출되고, 주위 친지의 관심과 설득으로 소세경과 어렵사리 결혼에 이른다. 결혼은 하였지만 부부 관계는 여전히 원만하지 못하며, 여기에다 소세경 부자와 함께 돌아간 시집은 지극히 청빈하여 끼니를 걱정할 정도이다. 소세경은 비록 속으로나마 소인인 장인을 경멸하고 있었고, 이현영은 아버지를 경멸하는 남편에게 불만이 있어서 부부관계가 원만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현영은 자신이 전에 예를 지키느라 과도하게 처신한 것이 부끄러워 남편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들의 부부관계는 소송의 권유로 서서히 회복된다. 부부관계가 회복되자, 이현영은 곧 아들 소봉희를 낳고, 소세경은 스승 사마광을 찾아가 수학한다.

소세경은 사마광 밑에서 전일 자신의 처신을 반성하고, 스승의 명에 따라 과거를 치러 장원급제한다. 그런 다음 암행어사 등의 벼슬을 받아 벼슬길을 떠돌며 훌륭한 업적을 쌓는다. 남편이 이처럼 밖으로 활동하는 동안, 이현영은 홀로 홀시아버지를 모시며 근로한다. 이현영은 고단한 노동에다 남편 걱정, 친정 걱정 등까지 겹쳐 더욱 힘든 삶을 산다. 특히 간간이 들려오는 친정 문제는 그에게 가장 큰 고민을 안겨준다. 그러다가 친정아버지가 회개하고, 동생 이현윤이 어렵사리 소세경의 외사촌인 경빙희와 결혼하게 되자, 근심걱정은 모두 사라진다. 이에 전에 부득이 아버지를 속이고 결혼한 것을 반성하며, 아버지를 모시고 자신이 어려서부터 살던 매송각에서 회혼례를 올린다.

줄거리에서 볼 수 있듯이, 이현영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선약을 무시하고 거듭 강요된 혼인을 거부하기 위하여 저지른 자해와 자결은 이현영의 삶이 죽음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유교 이념에 따른 정신적 긴장상태와 강박관념은 자신의 삶을 삶과 죽음의 날카로운 경계에 위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훼절의 위기는 여러 구원자를 만나 무사히 넘기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일상의 고통이 자리잡고 있다. 제5권, 제6권, 제14권 등

에서 자세히 서술되고 있는 것처럼, 비록 士大夫家의 여성이라도 육체 노동의 짐은 피할 수 없으며, 육체 노동은 여성에게 더욱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남편과의 불화는 육체적으로 지친 이현영을 정신적으로까지 더욱 힘들게 하고(제5권), 남편과 화해한 다음에는 남편이 공부한다거나 벼슬한다며 외지를 떠돌게 되자 홀로 가정을 꾸려야 하는 힘겨운 삶을 이어가게 된다. 이념의 질곡 속에서 신음하는 사대부가 여성의 삶은 필자가 이미 검토한 바 있으므로,(8) 여기서는 이현영의 일상적 삶의 어려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소세경과 어렵사리 결혼식을 올린 이현영은 남편과 시아버지를 따라 시집으로 간다(제5권). 그런데 시아버지 소송은 청빈한 선비여서 가정 살림이 매우 빈곤하다. 때문에 소세경은 아버지를 공양하기 위하여 낚시도 하고 춥고 눈오는 날에 나물을 캐기도 하며 품팔이 농사도 하는 등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생계에 급급한 소세경이 공부를 전혀 못하게 되자, 이를 본 아버지가 아들에게 賤役을 줄일 것을 명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소세경은 생계를 걱정한다. 이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며느리 이현영밖에 없는 것이다.

이현영은 원래부터 여공에 능했고, 남편이 시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고생할 때 남편과 함께 고생했다.(9) 그 역시 옷을 만들어 파는 등의 노동을 열심히 했던 것이다. 더욱이 이현영에게는 경제적·육체적 고통 외에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 친아버지의 소인행으로 인하여 마음 고생은 물론이고, 남편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없었던 것이다. 선비인 소세경도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현영에 비할 바는 못된다. 이현영은 온 집안 식구와 함께 겪는 경제적·육체적 고통

(8) 졸고(1998「완월회맹연 읽기: 이념의 질곡과 여성의 삶」,『문헌과 해석』3, 태학사)에서『완월회맹연』의 여성주인공 장성완과『옥원재합기연』의 이현영을 중심으로 유교이념의 질곡 속에서 신음하는 조선후기 여성의 삶을 분석한 바 있다.

(9) 이현영의 육체적 노동은 다음의 구절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싱(소세경)의 나모ᄒᆞ고 기음미믈조차 쇼졔(이현영) 스ᄉᆞ로 졀구롤 희롱ᄒᆞ여 보리롤 찌흐며 ᄇᆞᆯ을 ᄆᆡᆫ들고 유뫼 나간 ᄯᅢ면 ᄀᆞ만이 후뎡의 두레롤 드리워 졔웅을 취ᄒᆞ여 물기ᄅᆞ더 ᄆᆞᄋᆞᆷ의 염고ᄒᆞ미 업고 지죄 신능ᄒᆞ여 브진녁ᄒᆞ미 업스며 약질이 능히 슈고롭디 아니ᄒᆞ니" (5-518)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게다가 그는 낯익고 정겨운 친정을 떠나[10] 완전히 낯선 시집에서 살아가야 했으므로,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인해 고통이 배가되었을 것이다.

일일의 싱(소세경)이 논의셔 속을 거두고 그 갑술 거두어 뎡듕의 두고 다시 가ᄂᆞᆫ디라. 쇼졔(이현영) 즉시 ᄂᆞ려 단샹을 님의 ᄎᆞ고 초리롤 ᄭᅩ아 ᄲᅳᆯ 가온대셔 이삭을 줄나 손으로 부뷔여 부비롤 양ᄒᆞ여 볏출 향ᄒᆞ여 ᄆᆞᄅᆞ기롤 위ᄒᆞ여 널고 뷔롤 가져 졍히 쓰러 거두더니 공(소송)이 다ᄃᆞ라 보고 크게 ᄋᆡ셕ᄒᆞ야 옥슈롤 잡아 ᄀᆞᆯ오ᄃᆡ,

"네 쥬림옥쉬라. 엇디 이롤 ᄒᆞᆯ다. 인가의 영환귀슈로 일됴의 빈도대의 지어미 되매 농가산업의 마디 못ᄒᆞ거니와 현부ᄂᆞᆫ 쳥약ᄒᆞ미 뉴별ᄒᆞ니 엇디 능히 이긔리오."

인ᄒᆞ여 옥슈롤 노치 아냐 잇그러 당의 올나 ᄋᆡ모ᄒᆞ믈 마디 아니ᄒᆞᆯ ᄉᆡ 그 손을 보니 셤셤ᄒᆞᆫ 옥졔 뎌롤 ᄊᆡ흐ᄆᆡ 속을 부뷔여 낫낫치 브ᄅᆞ터 샹ᄒᆞ엿ᄂᆞᆫ디라. 공이 심통빈튝ᄒᆞ여 참연이 ᄀᆞᆯ오ᄃᆡ,

"이 다 노부의 괴라. 널로 ᄒᆞ여곰 비샹ᄒᆞᆫ 각고롤 ᄒᆞᄂᆞᆫ도다."

참연ᄒᆞ여 이긔디 못ᄒᆞ니 쇼졔 숑구블안ᄒᆞ고 황감블승ᄒᆞ여 옥안의 양츈이 ᄀᆞ득ᄒᆞ여 (5-518~519)

인용문은 이현영의 고생과 이를 안타까워하는 시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이 절실하게 표현된 부분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으로 남편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자, 시집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때 이현영은 자신이 이미 초복을 짜 팔아 백금을 얻었다며, 남편에게는 그저 학문에만 정진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돈으로 노비와 전답을 사서 시집의 생계

(10) 『옥원재합기연』은 친정을 떠나 시집으로 가는 이현영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절절하게 그려내고 있다. "어시의 니쇼졔(이현영) 니친젹 기고향ᄒᆞ고 죵구슈부ᄒᆞ야 만니애각의 도라오니 뫼히 쳔쳡이오 믈이 만구뷔라 산봉이 묘묘ᄒᆞ고 빅운이 망망ᄒᆞ여 고향을 다시 보기 어렵고 강파ᄂᆞᆫ 기리 흐ᄅᆞᄂᆞᆫ디 쳔니뎡되 댱댱ᄒᆞ니 뉴슈롤 조차 다시 도라가기 어려온디라. ᄋᆞ녀의 ᄉᆞ졍이 비록 샹니의 이셔ᄂᆞᆫ 춤기 어렵거ᄂᆞᆯ ᄒᆞ믈며 쇼져의 하ᄂᆞᆯ을 긔망ᄒᆞ고 텬셩이 막히므로 삼ᄉᆞ년 별ᄒᆞᆫ을 겸ᄒᆞ여 다시 원별을 지으미냐 쥬야톄읍ᄒᆞ여 홍뉘 홍뉘 옥협의 죵횡ᄒᆞ고 ᄌᆞ쉬 창산을 둘넛ᄂᆞᆫ 가온대 됴모의 시식을 폐ᄒᆞ여 슈쟉을 너치 아니니 유뫼 민망ᄒᆞ여 빅단 위로ᄒᆞ나 듯디 아닛ᄂᆞᆫ디라." (5-489~490) 정상적으로 결혼한 신부들도 친정을 떠나는 슬픔이 적지 않을 터인데, 이현영처럼 결혼하기 전에 가출하여 삼사년 친정을 떠나 있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다음 다시 遠別을 짓게 되니 그 고통이 어떻겠냐는 말이다. 이로써 낯선 시집에서 겪을 이현영의 고통이 소세경에 비할 바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를 안정시킨다. 연약한 부인 이현영이 갖은 고생 끝에 위기에 빠진 시집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현영이 시집을 살렸다고 그의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산고 끝에 아들 소봉희를 낳자, 남편이 장기간 공부하고 벼슬하러 집을 비우기 때문이다. 이제 남편과도 어느 정도 화해하여 정신적으로는 한결 편안해졌고,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되었지만, 한 집안의 주부로서 근로는 끝이 날 수 없다.

> 니소졔(이현영) 냥인을 원별ᄒᆞ매 텬셩지효로 갈녁진언ᄒᆞ여 봉친봉ᄉᆞᄒᆞ매 동동쵹쵹ᄒᆞ여 나즌 듕궤롤 임ᄉᆞᄒᆞ야 감지롤 비의ᄒᆞ고 유식화안으로 긔경긔셩ᄒᆞ여 열디봉슌의 밋디 아닌 ᄃᆡ 업ᄉᆞ며 밤으로 녀홍을 근근ᄒᆞ여 봄이면 녀상을 다ᄉᆞ려 숙빅으로 존구의 의복을 경유ᄒᆞ물 취ᄒᆞ고 지시여벌ᄒᆞ여 불시지녀롤 두고 ᄀᆞ을이면 지젹을 다ᄉᆞ려 현황을 믈드리며 야ᄃᆡ고등ᄒᆞ여 의방 밀밀의 원급션부ᄌᆞᄒᆞ고 취작ᄒᆞ리예 년작 의상ᄒᆞ여 슈의롤 미처 먼니 냥인의게 존문ᄒᆞᆯ ᄉᆡ 그 ᄌᆞ급을 헤아려 녀환의 ᄀᆡ고롤 뉴렴ᄒᆞ니 쵹ᄃᆡ 긔황ᄒᆞᆫ 삼년의 일향이 년근ᄒᆞ여 돈 열낫치 ᄲᆞᆯ 오흡이오 십두 즉 젼쳔문이라. (14－420～421)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현영은 남편을 대신하여 시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해야 할뿐만 아니라, 일가친지의 옷을 짓고 밥을 해대는 수고를 마다할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마을에 기근이 닥치자, 사람들을 모와 일하게 하고, 무역을 하여 돈을 벌어 구황하는 일까지 도맡아 하기까지 한다. (14－420～)

이현영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옥원재합기연』은 사대부가 여성의 힘든 삶을 비교적 잘 재현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자는 그 힘든 삶을 인생은 고해라는 비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돕는 이현영의 고생을 성스러운 차원으로까지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과 봉사의 정신은 가족이라는 협소한 울타리에 머물지 않고 이웃에까지 확대되어 있는데, 이로써 이현영의 삶이 대의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현영은 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이긴 하지만, 사대부가 여성의 자아실현과 성취의 범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이현영의 모습을 통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집안과 사회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여성 이미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3. 여성소설적 성격

규장각본 『옥원재합기연』의 필사자가 溫陽鄭氏(1725~1799)를 비롯한 일군의 사대부가 여성들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려니와, "ᄎᆞ편의 은쇄지셜이 부녀의 열남홀 바 아니로ᄃᆡ 소송 부ᄌᆞ의 정대ᄒᆞ고 슉묵ᄒᆞᆫ 가온대 친이ᄒᆞ미 돗타와 ᄒᆞᆫ갈 ᄀᆞᆺ치 부지 죠용샹확ᄒᆞ여 션회ᄒᆞᆫ 녀ᄌᆞ롤 감화ᄒᆞ고 협칙ᄒᆞᆫ 부인으로써 화슌ᄒᆞᆫ 부도롤 어드미 아롬다올시 긔관을 ᄌᆞ시 긔록ᄒᆞ노라."(5-568)는 작품 내의 진술을 통해서도 주독자층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은 여성이 주로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창작한 작품인 것이다. 따라서 『옥원재합기연』이 어떤 다른 작품보다 강한 여성소설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리라는 점은 쉽게 예견된다.

필자는 이미 졸저 『완월회맹연 연구』를 통해 여성소설로 추정되는 『완월회맹연』의 여성소설적 특징으로 ① 家中事를 섬세하게 서술한 점, ② 등장인물의 심리가 심도 깊게 분석되며, 또한 매우 확대되어 있는 점, ③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 제도에 대한 불만이 은연 중에 표현된 점, ④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든지, 남편의 사랑을 첩 등의 다른 여성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등의 여성의 바램이 드러난 점 등을 든 바 있다.[11] 『완월회맹연』에서 드러난 이러한 여성소설적 특징은 『옥원재합기연』에서도 거의 흡사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이런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특징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여성의 장식적 관심이 잘 나타난다. 제5권에서 이원의 부부는 자기 딸의 결혼인지도 모르고 처조카의 결혼으로 생각하고, 바쁘게 옷을 꾸며 입고 결혼식장으로 향한다. 이 광경을 보자.

> 혼인 못고지예 놈의 뒤져 빠질가 넉여 됴흔 의복을 가히고 졉어 식식이 너헛다가 ᄲᅥᆯ쳐내여 쟐 이져 고이 닙고 창두차환을 칠보응장ᄒᆞ고 향화로 인도ᄒᆞ게 ᄒᆞ고

(11) 앞의 책, 제6장 참조.

니공(이원의)이 쳥운문단도의 예흑대젼으로 두로고 ᄌᆞ젹비단챵의예 각식 등거리 ᄊᆡ고 남황대단쾌ᄌᆞ를 **쩌** 닙고 짓비단관을 쓰며 진홍단 너분 ᄯᅴ예 슌금장도 빗기 ᄎᆞ고 통텬셔의 빅옥ᄯᅴ ᄎᆞ 부치고 빅비단 힝젼의 분홍승말의 짓비단 묵회를 신어 시니 즉북 ᄃᆞ친 ᄂᆞᄎᆡ 마치 번즉 홍칠ᄒᆞᆫ 댱승ᄀᆞᆺᄒᆞ여 놉흔 가ᄉᆞᆷ의 브른 ᄇᆡ를 내 밀고 집덤 안자시니 광대군 ᄀᆞᆺ고 토긔신군ᄀᆞᆺᄒᆞ더 공시(이원의의 처) 또 셩권 권 ᄒᆞᆫ 눈섭을 다 쌉아 쳥화로 프ᄅᆞ게 그리고 누ᄅᆞ고 거문 ᄲᅡᆷ의ᄂᆞᆫ 고려분을 보희야게 ᄇᆞᄅᆞ고 반ᄀᆞᆺ한 ᄀᆞᆺ출 더ᄋᆞ 두ᄅᆞ고 칠보빵봉관을 ᄡᅥ시니 어듭은 진쥬ᄂᆞᆫ 광대ᄲᅧ를 다이ᄌᆞ며 느ᄇᆞᆫᄒᆞᆫ 허리의 직취샹을 둘너시니 산악인가 의심되고 너른 등의 쵹금뎍의를 닙어시니 용슉ᄒᆞ더 죄 또ᄒᆞᆫ 무비ᄒᆞ더 둥근 눈의 빅녕이 황홀ᄒᆞ고 젹시 두로 ᄊᆡ여 보기 금즉ᄒᆞ니 문금이 믄득 쳔ᄒᆞ고 쥬취가 ᄃᆞ아 더럽더라. (5-461)

원문이 잘 판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의복이나 장식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므로, 필자는 위의 인용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서술자가 이원의 부부의 분수에 맞지 않는 허세와 사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이 입고 쓰는 복색을 자세히 그리고 있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복색의 빛깔과 장식용 보석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복색에 대한 섬세한 관심은 아무래도 여성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며, 이런 세부적인 면에서조차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의 일단은 감지될 수 있다.

둘째, 전통시대 여성 고유의 임무, 즉 女工에 대한 관심이 잘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 양반가 여성들은 그 활동 영역이 가정에 국한되어 있고, 따라서 여공은 가정사와 관련된 옷만들기, 음식만들기 등에 한정되어 있다. 『옥원재합기연』을 여성소설로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여공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쇼졔(이현영) ᄇᆞ야흐로 긔여(낙선재본에는 "틀")의 올나 직져ᄒᆞ니 날이 치오매 실이 ᄌᆞᄅᆞ 쏫드ᄅᆞ더 명뫼 ᄂᆞ즉ᄒᆞ고 옥**쉬** 가ᄇᆞ야와 북더디기를 ᄌᆞ로 ᄒᆞ니(6-3)"에서 볼 수 있듯이, 작가는 추운 겨울에는 실이 잘 돌지 않아 직저하기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이다. 남성들이 베짜기의 이런 문제점을 알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소설 속에 표현해 내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는 음식만들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노어회 금닌탕이 어만의 건져시되 댱슌의 싱각ᄒᆞ요미라. 십지신옥으로 베픈 곳의 신긔티 아니미 업고 계슈향으로뻐 ᄒᆞ며 지란초로 작국ᄒᆞ여 술을 비저시니 그 ᄆᆞ옴 다ᄉᆞ린 바로 밥을 지으매 졍결ᄒᆞ고 슌향ᄒᆞ니 마시매 션향이 입의 ᄀᆞ득ᄒᆞ고 비위 묽아 흉금이 상연ᄒᆞ니 비록 금뉸의 법을 비화 음식을 민들고 츌쥬방문을 드ᄅᆞ여시나 엇디 이 마시 비ᄒᆞ리오. (6-49)

위의 장식적 관심, 베짜기, 음식만들기 등은 여성소설적 특징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여성소설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오직 여성들만이 체득할 수 있는 출산의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은 다른 무엇보다 각별한 기억을 남긴다. 특히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전통사회에서는 그 위험도와 고통으로 인하여 평생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기억을 각인한다. 게다가 출산은 대를 잇게 하는 성스러운 일이기까지 하다. 사정이 이런 데도 대개의 고전소설에서 보이는 출산은 대를 잇게 되는지 여부에 관심을 둘 뿐, 출산 당사자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옥원재합기연』이 보여주는 이현영의 출산과정에 대한 서술은 여성소설적 특징의 중요한 요소로 거론될 수 있다.

제6권에서 이현영이 소세경과 화해하자, 소송 등의 일가친척들은 이제 후사를 걱정한다. 소세경의 외숙모인 경부인은 소세경에게 "니시(이현영) 품질이 샹등이라 요졀ᄒᆞ든 아닐 거시로ᄃᆡ 과약ᄒᆞ고 너모 쳥고ᄒᆞ니 또 슈골이 아니라 현미(소세경의 어머니) ᄆᆞ춤내 쳥슈ᄒᆞ시매 슈치 못ᄒᆞ시고 현딜(소세경)을 만ᄂᆡ의 싱하시메 만ᄂᆡ 싱산이 해로오니 부녜 산휵이 위ᄐᆡ로온 ᄭᅳᆺ치라. 만히 보니 너모 일즉이 다산ᄒᆞ매 근원을 장적ᄒᆞ고 또 만경 산휵이 슈 샹ᄒᆞᄂᆞᆫ 밍ᄃᆡ라. 니시 만일 긔운이 튱셩ᄒᆞᆫ 후 싱산을 열면 됴흐ᄃᆡ 일즉 산휵ᄒᆞ면 민망ᄒᆞ리러라. 셰ᄋᆡ 너모 ᄀᆞᄂᆞ른 지 엇디 유신ᄒᆞᆫ 톄 잇더뇨.(6-52)"라며, 소세경의 어머니가 늦게 아들을 보아 죽게 되었다면서 연약한 이현영이 임신하더라도 출산이 걱정된다는 말을 한다. 이에 소세경은 "거일의 녯 쇽지(낙선재본에는 "휴지")롤 번고ᄒᆞ다가 션비의 병녹(病錄)을 보오니 쇼딜(소세경)을 잉신 시의 혈유가 나시더라 ᄒᆞ오니

싱각건대 블쵸롤 말ᄆᆡ아마 긔혈이 쇼갈ᄒᆞ시믈 아올디라. 이 쇼딜의 죄라(6-53)"며, 어머니께서 나이 들어 아들을 낳기 위해 산고를 겪다가 혈유(血瘤-핏덩어리)를 흘리고 기혈이 쇠진하여 결국 일찍 돌아가셨다며 자책한다. 소세경이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자, 주위 사람들은 "아등은 안해 혹 감슈ᄒᆞ나 혈유날 일이 이셔 군평(소세경)ᄀᆞ톤 ᄌᆞ식을 두어 보고져 ᄒᆞ거놀(6-53)" 이라며 위로한다. 비록 아내가 일찍 죽는 한이 있더라도 소세경처럼 훌륭한 아들을 낳기만 한다면 혈유 쯤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소세경은 주위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생각에 반박을 가한다.

> 형은 가히 덕이 박ᄒᆞ고 과욕ᄒᆞᆫ 쟈로다. 므릇 무후ᄒᆞ매 결ᄉᆞᄒᆞᄂᆞᆫ 두리오미나 ᄇᆞ효삼범(不孝三千)의 막대어무휘(莫大於無後)라. 안해 병들거시니 ᄌᆞ식 나치마쟈 말은 되디 아니커니와 놈의셔 나은 아돌을 구ᄒᆞ여 쳐ᄌᆞ롤 감슈ᄒᆞ믈 구ᄒᆞ미 엇디 인졍이리오. ᄒᆞ믈며 션비롤 샹언ᄒᆞ시게 ᄒᆞ고 쇼뎨 ᄀᆞᆺ톤 노용ᄒᆞᆫ 무리 만고의 ᄇᆞ효 죄인이니 죽어 쇽디 못ᄒᆞ나 평싱 유ᄒᆞᆫ이니 형등의 말을 괴이히 넉이노라.(6-53~54)

후사를 두지 못하는 것 이상의 불효는 없으므로, 후사를 위해 다소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훌륭한 자식을 낳기 위해 아내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은 대를 잇는 기계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 늘상 자식 보기를 기대하던 소세경이 하루는 내당에 들어가 이현영이 서안에 엎드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에 소세경이 이현영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그래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손을 잡아보는데, 이미 "(손이) 어롬 ᄀᆞᆺ고 옥빈의 구술 ᄀᆞᆺᄒᆞᆫ 쏨이 ᄆᆡ치고 쥬슌의 혈식이 아이고 긔운이 엄착(6-56)"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소세경이 비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데, 비자는 이현영이 임신해서 이미 산달을 넘겼다고 한다. 비자는 "잉ᄉᆞᄂᆞᆫ 부인의 덧덧ᄒᆞᆫ 병환"으로 알아 이현영의 통증을 고하지 않았는데, 깨닫고 보니 범상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현영은 "내 혈뮈 나기 수월이라. 이ᄂᆞᆫ 안흐로 진원이 쇼갈ᄒᆞ미니 가히 산치 못ᄒᆞᆯ 거시오. 비록 싱산ᄒᆞ나 살오미 만무ᄒᆞ

니라.(6－57)"라며, 그 간의 사정을 말한다. 이현영은 자신이 출산하기도 어렵고, 설령 출산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쇽어의 히산ᄒᆞᄂᆞᆫ 부인이 다시 잉시 이실가 겁ᄒᆞᆫ다.(6－60)"는 말처럼, 참을 수 없는 산통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각고 끝에 이현영은 결국 어렵게 아들 소봉희를 낳게 되며, 주위의 극진한 간호로 되살아나게 된다. 이현영이 출산과정을 통해 보여준 산고는 당대나 현대를 불문하고 여성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작품의 여성소설적 성격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완월회맹연』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여성소설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심리분석이 매우 확대되어 있다. 특히 제20권과 제21권에서 보이는 경빙희(소세경의 외사촌 여동생)에 대한 심리변화 분석은 매우 치밀하여 오히려 『완월회맹연』보다도 밀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경빙희는 경운의 딸이다. 경운이 일찍이 구양수를 찾아가 딸의 배필을 물색해줄 것을 부탁하자, 구양수는 자기 제자 가운데 이씨 성을 가진 제자와 혼인시키라고 한다. 이씨 성을 가진 제자는 사실 이원의의 아들이자 이현영의 동생인 이현윤이다. 경운은 이씨 성을 가진 제자가 소인 이원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결혼을 반대한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현윤 또한 경운이 아버지를 능멸했음을 알고 경빙희와 결혼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한다. 그런데 경빙희가 부모님이 계신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도적을 만나 죽을 위기에 놓이는데, 이를 우연히 이현윤이 구하게 된다. 그리고 둘은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남매지의를 맺으며, 이는 나중에 이현윤과 경빙희가 상대방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경운은 후에 이현윤의 인물됨을 알게 되고, 또한 이원의의 개과천선을 듣게 되어, 마음을 돌려 이현윤을 사위로 맞아들이고 싶어 한다. 개과천선한 이원의 또한 일찍부터 경운 집안을 잘 알고 있으므로 경빙희를 며느리로 맞이하고자 한다. 경운이 마음을 돌림으로써 혼사장애의 중요한 요소는 이미 제거되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우연히 의남매가 되었던 사실을 들어, 남매가 어떻게 부부가 되겠냐는 것을 중요한 반대 이유로 삼

아, 결혼을 결사 반대한다. 이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양가는 억지로 결혼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부부금슬이 좋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우선 당사자들의 마음부터 돌리려고 애쓴다. 나중에 이 사실이 임금에게까지 알려져 당사자들을 설득하게 되는데, 먼저 이현윤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결혼하기로 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경빙희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다.

아래의 인용은 소송(경빙희의 고모부)이 경운에게 경빙희의 심리상태를 설명한 부분이다.

> 녀즈의 션회는 고시지운이라. 비록 놈의셔 탁별ᄒᆞ여 디톄(肢體) 놉흔 부인일ᄉᆞ록 이는 더 심ᄒᆞ니 이는 무태(無他)라. 녀지 ᄉᆞ승ᄒᆞ고 고집ᄒᆞᆯ디라 혬을 도ᄅᆞ혀지 못ᄒᆞ고 ᄉᆞᄒᆞᆫ 재 놈의게 굴ᄒᆞ이니 곳 극ᄒᆞᆫ 뜻이 나미라. 극ᄒᆞᆫ 뜻을 감화치 못ᄒᆞ고 ᄒᆞᆫ갓 격ᄒᆞᆫ 즉 ᄉᆞ싱으로써 등한ᄒᆞ여 ᄉᆞ귀여견(事歸如見)ᄒᆞ니 도ᄅᆞ혀기 극난ᄒᆞᆫ디라. 셰ᄒᆞᆫ 즉 교ᄒᆞ고 협ᄒᆞᆫ 즉 ᄉᆞᄒᆞ니 곳 그 계칙을 위이불협ᄒᆞ고 유이억졔ᄒᆞ여 그 뜻을 항복밧고 ᄌᆞ졀이 다래여 감화ᄒᆞᆫ 즉 ᄌᆞ연이 복습ᄒᆞ여 곳 의디ᄒᆞ게 ᄒᆞ미 쉽ᄂᆞ니 이는 부형의 써 친홈과 위엄이라도 거즛 거시오 구고의 듕ᄒᆞ고 ᄉᆞ랑ᄒᆞ미라도 못ᄒᆞ니 다만 제 낭신이 읏듬이라. ᄃᆞᄅᆞ니 니랑(이현윤)이 그 졍졀을 감동ᄒᆞ고 질병을 참달ᄒᆞ여 그 몸이 사롬의 독지되야 봉양의 도와 종ᄉᆞ의탁이 지ᄎᆞ일신ᄒᆞ고 듕쥐롤 감당ᄒᆞᄆᆞ로써 표족의 신을 딕희여 셰월을 능히 연타등딕ᄒᆞ고 필경 병쟈롤 영귀ᄒᆞ여 지셩영뇨ᄒᆞ야 요힝 ᄉᆞ쇽일딘대 힝이오 불힝 즉 쇼쳐롤 두어 ᄉᆞ쇽을 닛고 원비롤 존ᄒᆞ련다 ᄒᆞ니 이 신의 ᄀᆞ잣고 말이 무거은디라. 가히 오확이 기릉탈지라. 어ᄂᆞ 녀지 고마온 ᄆᆞ옴이 업ᄉᆞ며 불안ᄒᆞᆫ 뜻이 업ᄉᆞ리오. 비록 입의 말이 업ᄉᆞ나 그 뜻은 노동ᄒᆞ야 도로혀고져 ᄒᆞ나 난쳐ᄒᆞ여 결단치 못ᄒᆞ미 잇ᄂᆞ니 형이 ᄯᅩ 녀즈 ᄀᆞᆺ치 존호의롤 말고 니시의 등딕ᄒᆞ미 삼년이라. 니랑이 뜻을 결ᄒᆞ여 뉵네로써 구비ᄒᆞ고 친영이 귀지ᄒᆞ여 그 집의셔 티료ᄒᆞ련다 ᄒᆞ고 급급네롤 바다 니랑을 맛디라. 이러ᄒᆞ여는 죽도 못ᄒᆞ고 사도 못ᄒᆞ고 절노 승슌복죵을 ᄒᆞᆯ 거시니 그 ᄆᆞ옴이 풀니고 뜻이 허려져 혐의재 친합ᄒᆞ고 ᄌᆞ져재 화평ᄒᆞ여 병이 ᄆᆞ옴을 다ᄉᆞ라 써 응당 나을 ᄃᆞᆺᄒᆞ고 불연이라도 부모의 뜻이야 규듕의 님자 업시 믿드라 두고 쥬야 잔잉ᄒᆞᆫ 병상으로 간쟝을 ᄯᅳᆺ쳐 애쓰ᄂᆞ니 ᄀᆞᆺᄒᆞ랴. (20－485～488)

다소 장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으므로, 억지로

시키면 듣는 척하지만 진실로 복종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억지로 강박하면 역효과만 생기기 쉬우므로, 천천히 감화시켜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 훨씬 좋다. 이현윤은 이미 心病으로 거의 죽게 된 경빙희를 믿고 삼년이나 기다린 데다가, 죽어가는 경빙희를 맞아 후손을 보게 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자를 두어 대는 잇되 경빙희를 元妣로 높여 함께 살겠다는 맹서를 한 바 있으므로, 이 말을 들은 경빙희도 고마워 하면서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지켜온 결혼반대 의사를 쉽게 돌이킬 수 없으므로 머뭇거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제 갑작스럽게 날을 받아 결혼시키면 스스로 마음을 고쳐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다.

소송의 심리분석은 구체적이고 치밀하다. 속으로는 거의 받아들이면서도 겉으로는 그것을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여성의 미묘한 심리가 잘 분석되어 있는 것이다. 고전소설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의 심리 상태를 이처럼 치밀하게 분석해낸 작품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치밀한 심리분석은 곧 당대 의학의 정신분석적 수준과 맞닿아 있다. 소세경은 외사촌 경빙희를 진찰하고는 아래와 같이 소견을 밝힌다.

사롬의 일운 배 안흐로 오관과 뉵뷔 잇고 밧그로 칠규와 빅톄이시니 일신지톄는 곳 텬디의 샹이라. 오음삼양의 팔쳔구공의 ᄒᆞ나히 ᄀᆞᆮ디 못ᄒᆞ여는 방위 그ᄅᆞ니 고로 뉵경 안히 병이 이시며 업ᄉᆞ므로뼈 질병 슈단과 텬우디우의 다운용도 수ᄒᆞ니 진원이 뷔탈ᄒᆞ여 뉵경이 실셔ᄒᆞ매 밧그로 풍한습남의 팀질이 잇고 안흐로 긔믹이 통운치 못ᄒᆞ여 인발어ᄉᆞ지불상ᄒᆞᄂᆞ니라. 긔톄의 삼십뉵 긔믹이 이셔 오ᄅᆞ표리롤 운슌ᄒᆞ여 뉵경을 ᄃᆞ리여 오관을 안방ᄒᆞ거ᄂᆞᆯ 표믹 뉵경을 거두쳐 심경의 브듸쳐시니 긔믹이 심경의 돌니여 능히 운슌틀 못ᄒᆞ기로 ᄉᆞ지운동ᄒᆞᆯ 길이 업ᄉᆞ니 이 ᄒᆞᆫ 조각 방촌을 도로혀매 뉵믹이 일시의 관화ᄒᆞ여 각각 방위롤 도ᄅᆞ혀 긔운이 운슌ᄒᆞ여 마치 하ᄂᆞᆯ의 일월 돌기 ᄀᆞᆺᄒᆞ니 삼십뉵믹이 일시의 펴지리니 목금의 굴신 임의ᄒᆞ여 돈연 긔립ᄒᆞᆯ디라. 쇼뎨 말솜이 실노 밍낭ᄒᆞᆫ 배리오. 만일 그 집의 편벽ᄒᆞ믈 확튱불요ᄒᆞᆯ딘대 그 긔믹이 운슌ᄒᆞᆯ 길히 업ᄉᆞ니 이 습남한열 노인병이 아니여니 ᄇᆞ샤로 튱쳑ᄒᆞ랴. 이 ᄒᆞᆫ 폐위 허ᄒᆞᆫ 배 아니니 침구복약ᄒᆞ랴. 무가내하ᄒᆞ니 신농이라도 빅초롤 맛보시니 곳 음양신늬 유로긔틱을 인경간위의 마초아 덜고 보태여 됴화ᄒᆞ실 배니 쇼뎨 아냐 기빅인들 엇디 ᄒᆞ리오. 이 잠간ᄒᆞ여 곳칠 거술 스ᄉᆞ로 확튱ᄒᆞ여 유톄의 싱휵을 ᄌᆞ장기멸ᄒᆞ고 부모의 호텬대은으로

ᄌᆞ졀 우거졀ᄒᆞ니 니른 만셰 죄인이오 쳔고의 업ᄉᆞᆫ 실셩이니 이 엇디 만년의 곳치지 못ᄒᆞᄂᆞᆫ 쟈 아니리오. (20-503~505)

소세경은 경빙희의 전신마비가 기맥이 막힌 데서 비롯되었고, 기맥이 막힌 이유는 執義를 편벽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병은 부모의 근심을 생각하여 마음을 바로 잡으면 나으리라는 것이다. 위의 진술에 몇몇 의학적 용어가 동원되긴 하였지만, 사실 소세경의 처방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의학의 수준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서술자가 의학까지 동원하여 인물의 심리를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한다는 점이다.

이제 『옥원재합기연』의 심리분석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이는 이현윤이 부부지사를 이루고 싶어하면서도 경빙희의 병으로 이루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으로, 장면전개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묘사도 매우 세련되어 있다.

유뫼 쇼져를 붓드러 침니의 올리고 쟝을 지으고 물너나니 싱이 심ᄉᆞ 됴치 아녀 즘이 업ᄉᆞ니 벼개를 비겨 보건대 금음돌 빗치 비로소 셔창의 비최ᄂᆞᆫᄃᆡ 쇼졔 유모의 안친재 박인 ᄃᆞ시 안잣거ᄂᆞᆯ 그 거ᄒᆞᆫ 곳이 지혀동상이라.

션향이 욱욱ᄒᆞ여 코히 ᄡᅩ이거ᄂᆞᆯ 뎌의 안존 거동이 아마도 병인 ᄀᆞᆮ디 아냐 ᄒᆞᆫ 줌 허리ᄂᆞᆫ 숙소 ᄀᆞᆺ고 ᄲᅡ혀난 엇개의 ᄀᆞᆺ초ᄂᆞᆫ 됴ᄒᆞ미 댱촛 학이 놀고져 ᄒᆞ고 기력이 니ᄅᆞ고져 ᄒᆞ니 이 진실로 명염졀완의 농셤이 득듕ᄒᆞ고 슈단이 합도ᄒᆞᆫ 격이라. 일방동상의 남ᄌᆞ의 됴흔 ᄯᅳᆺ이 엇디 요동티 아니리오.

혼자말ᄒᆞ여 닐ᄋᆞᄃᆡ "거동은 실노 병인이 아니로ᄃᆡ 엇디 그리 악질이 ᄀᆞ준고. 네예 오불취를 니ᄅᆞᄃᆡ 병인이 드러시니 더욱 경경 독신으로 조종의 듕ᄒᆞᆫ 몸이 되여 병부를 감심이취ᄒᆞ믄 실노 그 덕힝의 고졀홈과 셩질의 놉흐므로ᄡᅥ라. 날을 위ᄒᆞ여 몸을 더뎌시니 내 ᄎᆞ마 그 병인이라 ᄇᆞ리지 못ᄒᆞ미라. 그 비록 뉵톄를 쓰디 못ᄒᆞ나 이 몸이나 셩ᄒᆞ고 말솜으로ᄡᅥ 졍의를 통ᄒᆞ면 그 뇨됴현덕으로 규방의 ᄯᅦ로 벗ᄒᆞ여 노ᄅᆞ매 이 ᄯᅩᄒᆞᆫ 죵고의 벗이라 ᄒᆞ엿더니 엇디 이대도록 ᄒᆞᆫ 병인이 되긔ᄂᆞᆫ 젼일 보지 아녀도 참ᄒᆞ고 은축ᄒᆞ더니 이제 보매 더욱 츄연민졀ᄒᆞ여 내 ᄆᆞ음과 몸이 알픈 ᄃᆞᆺᄒᆞ도다." ᄒᆞ매 기리 혀ᄎᆞ고 회허ᄒᆞ더니 (21-553~555)

이현윤은 부인 경빙희의 유모가 함께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장막을 치고 밖으로 나가자 심사가 편치 못할 뿐만 아니라, 미인과 한 방에 머물게 되어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욕정을 어쩌지 못한다. 그러나 욕정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병들고 딱한 처치를 생각하자, 그것을 억제치 않을 수 없다. 이현윤의 탄식은 인용문 다음에도 길게 이어지는데, 이처럼 『옥원재합기연』에서는 등장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자세히 그려지고 있으며, 이는 이 작품의 여성소설적 성격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이밖에도 『옥원재합기연』에서는 당대 여성의 주된 관심과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바램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이 작품이 여성적 시각을 확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당대 여성의 주된 관심은 규방 내의 부부생활을 비교적 자세히 그려내는 데서 볼 수 있는데, 이현윤과 경빙희의 부부생활을 그린 바로 위의 인용문도 그렇지만, 소세경이 부인 이현영과 억지로 동침하는 장면(제5권)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소세경이 후사를 보기 위하여 강압적으로 이현영과 동침을 시도하자, 이현영은 일시적으로 저항하지만 결국 남편에 따르고 만다. 여기서 서술자는 "니소져(이현영)의 강녈ᄒᆞ므로도 댱부를 엄탄ᄒᆞ고 군ᄌᆞ의게 히음업시 복슌ᄒᆞ니 녀지 가히 가련ᄒᆞᆫ 줄 알리로ᄃᆡ" 라고, 여성의 나약함에 동정을 표한다. 이런 진술에서 여성의 억압적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적 바램은 이 작품의 남성 등장인물들이 지극히 여성적 시각에 의해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이 작품의 남성인물들은 부인생시에 첩을 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인이 죽었다고 해도 쉽게 후처를 보지 않는다. 특히 주인공 소세경은 4년 동안이나 부인과 떨어져 살면서도 당대에는 당연히 얻게 될 기생 등의 여성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며, 또한 작품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 노애 엇디 ᄉᆞ년 공관이며 십년 독거신들 녀관의 유의ᄒᆞ시리잇가? 비록 위예 조ᄎᆞ시나 시쳡이 감히 어룬거리리 업ᄉᆞ니 복이 다만 ᄉᆞ후ᄒᆞ더니이다. (17-160)

집안을 떠나 지방관으로 나간 벼슬아치가 기생이나 시첩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상식 밖인 것이다. 그래서 이현영의 유모인 설화는 소세경의 종자의 말을 전혀 믿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소세경 같은 경우를 현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 작품은 소인 이원의를 전형적

인 공처가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12) 이런 점들에서 여성적 시각을 읽어낼 수 있다.

4. 결 론

위에서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사실 여성소설적 성격은 남성소설과의 엄밀한 대비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소설은 대개 그 작가가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작업은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구운몽』 등의 일부 작가가 밝혀진 작품과 비교할 수는 있겠는데, 그나마 그러한 작품들은 『옥원재합기연』 등의 장편대하소설과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므로 문제가 없지 않다. 장편대하소설 가운데, 명백한 남성작가의 작품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예를 찾을 수 없으므로 비교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사실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등의 남성소설을 은연 중에 염두에 두고 있다. 본고에서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을 탐색하는 작업은 이런 한계 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문학연구에서 여성작품의 특징을 찾는 작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13)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흔히 여성작품과 남성작품의 중요한 차이를 양성간의 상이한 경험에서 찾았다. 여성작품과 남성작품과의 차이점으로 여성작품에서 곧잘 반복되는 억압의 이미지나 어린애 돌보기에 대한 비감성적 묘사 등을 찾아서, 이를 양성간의 상이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곤 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여성의 의식이 남성들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여성작품이 남성작품과 구별되는 문체와 구조를 지닌다고 보기도 했다. 그런데 여성작품의 특징이 상이한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 적용에 한계가 있고", 독자적인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12) 『옥원재합기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개성이 매우 뚜렷하다. 필자는 이 작품의 인물성격에 대해서는 별고를 마련할 작정이며, 거기서 공처가 이원의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3) 이 단락은 쥬디스 키건 가디너, 1988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글」, 『페미니즘과 문학』(김열규 외 공역), 문예출판사. 219~220면을 참조할 것.

주장은 "신비화나 순환논리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들 학자들은 여성작품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종합하거나 설명하지도 않고 그저 열거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소설이 남성소설과 상당히 다르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지만, 그 차이를 지적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은 자칫하면 위의 비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특징을 열거하고 말아버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심지어 여성소설의 특징으로 지적된 것들이 남성소설에서 결코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작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여겨지는 까닭은 한국의 고전소설연구에서 아직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탐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서사문학의 전통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과 성과를 조명하는 작업은 포기될 수 없다. 오히려 고전소설은 물론이고, 『계축일기』, 『한중록』 등의 실기류 및 규방가사, 기생시조, 한글편지 등의 여러 양식으로 확대시켜, 조선조 여성문학의 전통과 특징을 더욱 집중적으로 구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본고의 의의가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